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및 가족탄력성이 성공적 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양 남 영¹⁾ · 송 민 선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2018년 고령자 통계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 1천명으로 전체인구 14.3%를 차지하여 한국사회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1]. 최근 우리사회는 상대적, 절대적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것보다 어떻게 성공적으로 늙어 보람되고 행복한 노후의 삶을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노화를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 낙관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적 노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2]. 또한 노화는 전 생애를 통해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정상 과정이므로 노년기 뿐만 아니라 노년기 이전의 다양한 연령대에서부터 성공적 노화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식하고, 건강한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성공적 노화는 정서적으로 자기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생산활동이나 신체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력 있게 늙어가는 것이다[3]. 성공적 노화에 대한 청년 집단의 인식을 노인 집단과 비교한 Park과 Yi [4]의 연구에서 청년과 노인 집단 모두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것, 즉 자율적인 생활이 성공적 노화의 요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특히 자율적인 생활 중에서 노인 집단은 건강 측면을, 청년 집단은 경제적 측면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일 대학생의 성공적 노화 지각 정도를 비교한 Kim [5]의 연구에서 국내 대학생은 성공적 노

화에 있어서 부부가 건강하고 자녀와는 좋은 관계를 가지며, 질병이나 장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성공적 노화를 현실 수용적 및 관계 지향적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노화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 질병, 고독, 역할 상실 등을 통해 위기 직면 시 오히려 위기를 유연하게 수용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욱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이때 발휘되는 능력이 자아탄력성으로 최근 노년기 삶의 주요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6].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변화되는 상황의 요구에 좌절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적응요소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 확신과 수용 수준이 높고, 부정적인 정서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더 잘 지각하여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7]. 따라서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미래에 직면하게 되는 노화 과정으로 인한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변화된 상황을 잘 극복해나감으로써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성공적 노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가족탄력성은 가족의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서 가족 간의 분열을 막고 가족체계 내에서 건강하게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가족의 긍정적인 능력으로 노화와 관련된 생활스트레스에 의한 위기상황 시 성공적 노화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8]. 노화로 인한 장애 중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큰 위기를 초래하는 문제인데, 가족탄력성이 치매노인

주요어 : 탄력성, 노화, 의사소통, 간호대학생

1)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https://orcid.org/0000-0002-0226-3379>)

2)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교신저자 E-mail: mssong@konyang.ac.kr) (<https://orcid.org/0000-0001-8816-5122>)

투고일: 2019년 9월 21일 수정일: 2019년 10월 6일 게재확정일: 2019년 10월 20일

부양가족의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9]. 이는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위기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으므로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는 현 가족제도에서 노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가족들의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할 때 가족의 기능과 탄력성을 높이고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가족탄력성이 높다면 위기를 무난히 극복하여 노화과정으로 인한 가족해체와 같은 불행한 상황은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 볼 수 있겠다.

성공적 노화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들로는 중년층에서 노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노후 준비가 적극적이라고 하였으며[10], 중년 여성에서는 연령, 가족탄력성 및 삶의 만족도가 성공적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1]. 청소년은 성공적 노화에 대한 하부영역 중 건강하고 원만한 가족관계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일 경우, 생활수준이 낮아질수록, 조부모와 친밀하다고 느낄수록 성공적 노화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주거와 잔존능력의 활용은 고등학생일 경우, 목적이 있는 삶 계획에서는 고등학생일 경우, 생활수준이 낮아질수록 성공적인 노화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서는 일상생활활동작능력이 좋을수록 성공적인 노화라고 인식한다고 하였다[12]. 성인 여성은 학력, 주관적 경제수준, 자아존중감을, 남성은 자아존중감을 성공적 노화인식의 영향요인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2]. 대학생들과 노인에게 개방적인 질문으로 성공적 노화에 대해 확인한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이라고 하였으며, 그 중 대학생은 경제적 측면을, 노인은 건강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4].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서구의 노인들에 비해 개인과 가족의 안녕을 상대적으로 높게 중시한다고 하였다[4].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일반적 특성들을 중심으로 대학생과 노인[4], 성별[2]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의 차이를 확인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대학 시기는 자아정체감을 가지기 위한 유예기간으로 가정, 사회 내에서 자신의 위치나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접하고, 주변의 변화를 쉽게 수용하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가장 쉽게 감지하는 시기이며[13], 미래 노인을 부양할 책임이 있으므로 급속하게 전개된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해야 한다. 특히 장차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은 간호를 수행하게 될 주 대상자가 노인으로 변화되는 간호현장에 적응해야 하므로 이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중, 노년기가 인식한 성공적 노화의 중요 변인인 자아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이 대학생 집단에서도 중요한 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및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의 영향

변인을 파악하여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노화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위한 중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및 가족탄력성이 성공적 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고,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및 성공적 노화 인식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및 성공적 노화 인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및 성공적 노화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이 성공적 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및 성공적 노화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련성과 성공적 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시 소재 일 대학교의 간호대학의 재학생 중 16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본 수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회귀분석을 위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7개로 하였을 때, 153명이 산출되었는데 탈락률을 10%를 감안하여 최종 168명으로 정하였고, 이는 통계적 분석 조건을 충족하였다. 1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나 답변이 불완전한 14부를 제외하고, 154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 자아탄력성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Lee와 Kim [14]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자아탄력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4개의 하부요인으로 긍정적 사고 10문항, 정서조절 10문항, 목표지향성 6문항, 의사소통방식 6문항,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였고,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

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와 Kim [14]의 개발당시 Cronbach's alpha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67이었으며, 하부요인별 Cronbach's alpha는 긍정적 사고 .61, 정서조절 .83, 목표지향성 .46, 의사소통방식 .81이었다.

● 가족탄력성

대상자의 가족탄력성은 Walsh [15]이 개발한 가족탄력성 측정도구 문항을 토대로 Shin과 Kim [16]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3개의 하부요인으로 신념체계 13문항, 조직유형 17문항, 의사소통 15문항, 총 4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Walsh [15]의 개발당시 Cronbach's alpha는 .92이었고, Shin과 Kim [16]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2이었다. 하부요인별 Cronbach's alpha는 신념체계 .81, 조직유형 .88, 의사소통 .9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4이었고, 하부요인별 Cronbach's alpha는 신념체계 .75, 조직유형 .86, 의사소통 .92이었다.

● 성공적 노화 인식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인식 정도는 Paik [17]의 연구에서 심층면접을 통하여 최종 선정된 83문항을 Choi [18]가 요인분석을 통하여 수정보완한 성공적 노화 인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6개 하부요인으로 개인성장 11문항, 건강과 경제 7문항, 의미추구 5문항, 가족의 안녕 4문항, 중용 3문항, 과시성 3문항, 총 3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2점, '대체로 중요하다' 3점, '매우 중요하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인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ik [17]과 Choi [18]의 연구에서 전체문항 신뢰도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6개 하부요인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개인성장 .92, 건강과 경제 .85, 의미추구 .77, 가족의 안녕 .75, 중용 .63, 과시성 .6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5이었고, 하부요인별 Cronbach's alpha는 개인성장 .92, 건강과 경제 .87, 의미추구 .79, 가족의 안녕 .78, 중용 .58, 과시성 .70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대상자 모집문건을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연구참여를 수락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설문조사 전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참여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중단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동의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참여자의 서명을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가 기입하게 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20분 정도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작성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SPSS WIN 24.0 통계 프로그램으로 전산통계 처리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성공적 노화 인식 정도는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및 성공적 노화 인식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 후 사후검정은 Tukey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및 성공적 노화 인식은 정규분포를 하므로 이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산출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자아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이 성공적 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KNU_IRB_2019-32)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의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하고, 연구참여는 성적과 무관함을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시행된다는 것과 언제든지 대상자가 원할 경우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암호화하여 익명성을 준수하고, 연구종료 후 자료는 3년간 보관하며 이후 관련서류들은 분쇄·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83±1.60세이었고, 성별은 남자 51명(33.1%), 여자 103명(66.9%)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과 2학년

은 각각 40명(26.0%), 3학년과 4학년은 각각 37명(24.0%)이었다. 종교는 없다 100명(64.9%), 있다 54명(35.1%)이었고, 거주 형태는 집 31명(20.1%), 기숙사 55명(35.7%), 자취 64명(41.6%), 친척집 4명(2.6%)이었으며, 주관적 경제상태는 ‘나쁘다’ 12명(7.8%), ‘보통이다’ 123명(79.9%), ‘좋다’ 19명(12.3%)이었다. 조부모와 동거여부는 ‘현재 함께 살고 있다’ 61명(39.6%),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다’ 75명(48.7%), ‘과거에 함께 살았다(과거에 함께 살았으나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18명(11.7%)이었고, 노인봉사 경험여부는 ‘없다’ 19명(12.3%), ‘있다’ 135명(87.7%)이었으며, 노인간호학 교육 경험은 ‘없다’ 57명(37.0%), ‘있다’ 97명(63.0%)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및 성공적 노화 인식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5점 만점 중 평균평점 3.15±0.26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하부요인은 의사소통방식 3.80±0.54점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그 다음으로 긍정적 사고 3.29±0.36점, 목표지향성 3.21±0.45점, 정서조절 2.59±0.62점 순이었다. 대상자의 가족탄력성은 4점 만점 중 평균평점 2.92±0.30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하부요인은 의사소통 3.05±0.39점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그 다음으로 조직유형 2.94±0.34점, 신념체계 2.76±0.30점 순이었다.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인식 정도는 4점 만점 중 평균평점 3.38±0.36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고, 하부요인은 건강과 경제가 3.52±0.42점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그 다음으로 의미추구 3.43±0.39점, 개인성장 3.37±0.44점, 중용 3.31±0.45점, 과시성 2.85±0.68점, 가족의 안녕 2.82±0.36점 순이었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4)

Characteristics	n (%)	Mean±SD
Age (year)		21.83±1.60
Gender		
Male	51 (33.1)	
Female	103 (66.9)	
Grade		
Freshmen	40 (26.0)	
Sophomore	40 (26.0)	
Junior	37 (24.0)	
Senior	37 (24.0)	
Religion		
None	100 (64.9)	
Have	54 (35.1)	
Type of residence		
Parent home	31 (20.1)	
Dormitory	55 (35.7)	
Self-boarding/lodging	64 (41.6)	
Relative's house	4 (2.6)	
Subjective economy state		
Poor	12 (7.8)	
Usually	123 (79.9)	
Good	19 (12.3)	
Living with grandparents		
Lived together in present	61 (39.6)	
Not lived together in present	75 (48.7)	
Lived together in past	18 (11.7)	
Elderly volunteer activities		
No	19 (12.3)	
Yes	135 (87.7)	
Gerontological education		
No	57 (37.0)	
Yes	97 (63.0)	

〈Table 2〉 Ego Resilience, Family Resilience, and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of Subjects (N=154)

Variables	Sub-factor	Mean±SD	Range
Ego resilience	Positive thinking	3.29±0.36	1~5
	Emotion regulation	2.59±0.62	
	Goal-orienting	3.21±0.45	
	Communication	3.80±0.54	
	Total	3.15±0.26	
Family resilience	Belief system	2.76±0.30	1~4
	Organizational pattern	2.94±0.34	
	Communication process	3.05±0.39	
	Total	2.92±0.30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Personal growth	3.37±0.44	1~4
	Health and economy	3.52±0.42	
	Pursuit of meaning of life	3.43±0.39	
	Family welfare	2.82±0.36	
	Prudence	3.31±0.45	
	Showing-off	2.85±0.68	
	Total	3.38±0.3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및 성공적 노화 인식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년, 종교, 거주 형태, 주관적 경제상태, 조부모와 동거여부, 노인봉사 경험 여부, 노인간호학 교육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대상자의 가족탄력성은 일반적 특성 중 거주 형태($F=3.39, p=.020$)와 조부모와 동거여부($F=3.11, p=.048$)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 분석 결과, 가족탄력성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가 집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높았고, 조부모와 과거에 함께 살았던 경우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경우보다 높았다. 반면, 성별, 학년, 종교, 주관적 경제상태, 노인봉사 경험여부 및 노인간호학 교육경험에 따라 가족탄력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인식 정도는 일반적 특성 중 학년($F=12.51,$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사후분석 결과, 3, 4학년이 1, 2학년보다 성공적 노화 인식 정도가 높았다. 반면, 성별, 종교, 거주 형태, 주관적 경제상태, 조부모와 동거여부, 노인봉사 경험여부 및 노인간호학 교육경험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및 성공적 노화 인식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및 성공적 노화 인식 간의 상관관계 조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하부요인 중 의사소통 방식($r=.21, p=.010$)과 성공적 노화 인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가족탄력성의 하부요인 중 조직유형($r=.18, p=.025$)과 성공적 노화 인식 간에는 통계적으

〈Table 3〉 Ego Resilience, Family Resilienc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4)

General characteristics	Ego resilience		Family resilienc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M±SD	t or F (p)	M±SD	t or F (p) Turkey	M±SD	t or F (p) Turkey
Gender						
Male	3.14±0.30	-0.40	2.95±0.31	0.72	3.36±0.37	-0.37
Female	3.16±0.24	(.692)	2.91±0.29	(.472)	3.39±0.35	(.712)
Grade						
Freshmen ^a	3.16±0.26	0.40	2.90±0.24	0.32	3.15±0.27	12.51
Sophomore ^b	3.11±0.30	(.750)	2.94±0.33	(.810)	3.33±0.31	(<.001)
Junior ^c	3.17±0.27		2.96±0.29		3.56±0.33	a,b<c,d
Senior ^d	3.15±0.20		2.91±0.33		3.49±0.37	
Religion						
None	3.15±0.27	0.03	2.90±0.29	-1.34	3.37±0.37	-0.25
Have	3.15±0.25	(.979)	2.97±0.30	(.183)	3.39±0.33	(.800)
Type of residence						
Parent home ^a	3.11±0.25		2.79±0.26	3.39	3.47±0.39	1.97
Dormitory ^b	3.17±0.23	1.11	2.99±0.28	(.020)	3.32±0.36	(.121)
Self-boarding/lodging ^c	3.13±0.27	(.348)	2.94±0.32	a<b	3.40±0.33	
Relative's house ^d	3.34±0.48		2.79±0.10		3.11±0.27	
Subjective economy state						
Poor	3.12±0.16	0.15	2.79±0.31	2.02	3.35±0.49	0.05
Usually	3.15±0.26	(.863)	2.92±0.28	(.137)	3.38±0.35	(.950)
Good	3.17±0.33		3.17±0.33		3.37±0.34	
Living with grandparents						
Lived together in present ^a	3.11±0.25	1.22	2.88±0.30	3.11	3.38±0.35	0.32
Not lived together in present ^b	3.17±0.28	(.298)	2.92±0.29	(.048)	3.39±0.37	(.727)
Lived together in past ^c	3.19±0.23		3.19±0.23	a<c	3.31±0.34	
Elderly volunteer activities						
No	3.12±0.31	-0.47	2.84±0.36	-1.26	3.39±0.35	0.10
Yes	3.15±0.25	(.641)	2.94±0.29	(.209)	3.38±0.36	(.922)
Gerontological education						
No	3.10±0.23	-1.88	2.93±0.29	0.32	3.34±0.36	-0.99
Yes	3.18±0.27	(.062)	2.92±0.30	(.750)	3.40±0.35	(.326)

<Table 4> Correlation among Study Variables (N=154)

Variables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r (p)
Ego resilience	Positive thinking	-.03 (.709)
	Emotion regulation	-.15 (.061)
	Goal-orienting	.03 (.679)
	Communication	.21 (.010)
Family resilience	Belief system	.09 (.283)
	Organizational pattern	.18 (.025)
	Communication process	.12 (.144)

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대상자의 자아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이 성공적 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자아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이 성공적 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보인 자아탄력성의 하부요인 중 의사소통방식, 가족탄력성의 하부요인 중 조직유형을 독립변수로 하여 성공적 노화 인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전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였는데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분포성, 다중공선성 진단분석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91로 모두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10으로 10 이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잔차 분석 결과, Durbin Watson 검정결과는 1.738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인식의 영향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의 의사소통방식($\beta=.11, p=.043$)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설명력은 4.7%였다($F=4.70, p=.011$)(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및 성공적 노화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들에서 자아탄력성 및 가족탄력성이 성공적인 노화를 인식하는 영향요인으로 작

용하는 변수인지 파악하여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준비를 위한 간호중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3.15점(5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Park과 Yoon [19],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 [20]와 Hong과 Lee [21]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간호대학생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발휘하고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하여 간호대학생으로서 적절히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부요인 중 의사소통방식의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자아탄력성에서 의사소통방식은 대학생이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인 대인관계 문제에서 타인과 적절히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측정하는 요인으로[14] 간호대학생은 가족과 친구는 물론 학업과 관련되어 연결된 주변의 다양한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 시기를 잘 적응하고자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조사되어 성별과 거주형태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 Park과 Yoon [19]의 연구,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 Hong과 Lee [21]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성별 및 거주형태에 따라 자아탄력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평균평점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추후 차이에 대한 재조사 및 요인을 파악하는 반복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개발시키는 전략 마련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가족탄력성은 2.92점(4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하부요인 중 의사소통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Hyun [22], Yoon과 Kim [23]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가족이 경험한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초래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그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탄력성에서 의사소통은 모든 가족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15]으로, 탄력적인 가족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22]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가족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동시에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이해하며 수용할 수 있고, 가족 간에 사랑, 감사, 존중 등의 긍정적인 감정의 개방적인 표

<Table 5> Variables Affecting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N=154)

Variables	β	SE	t	p	F	p	R ²	Adj R ²
Communication	.11	.06	2.04	.043	4.70	.011	.059	.047
Organizational pattern	.14	.09	1.58	.117				

SE=Standard error; Adj=Adjusted.

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가족탄력성은 일반적 특성 중 거주 형태와 조부모와 동거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가 집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높았고, 조부모와 과거에 함께 살았던 경우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경우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집에서 거주하는 학생은 다소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방식을 보이는 반면, 집을 떠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은 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로 전환하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해결해나가며 적응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핵가족화로 인해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밀접한 관계가 어렵고 더구나 성인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조부모와 손자녀인 대학생의 관계는 소원한 상태로 발전하고 있어[24], 조부모와 과거에 함께 살았던 경우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경우보다 가족탄력성이 높게 조사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대학생의 가족탄력성 향상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경우, 조부모와의 관계 등의 전통적 가족의 형태 및 기능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도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성공적 노화 인식은 3.38점(4점 만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Choi [24]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하부요인 중 건강과 경제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는데, 간호대학생은 노년기가 되었을 때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질병이나 장애가 없어 몸을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고, 경제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쓸 돈이 있으며,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등이 필요한 조건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조건으로 건강과 경제를 높게 인식한 결과는 중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Choi [18]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노년기에도 청, 중년시기와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독립적인 삶을 가장 우선으로 요구한다고 생각된다. 성공적 노화 인식은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3, 4학년 학생이 1, 2학년 학생보다 성공적 노화를 높게 인식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학년에 따라 노화와 관련된 이론과 노인 대상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노년기 삶의 의미를 생각할 기회가 증가하고, 신체적, 정신적 질병 없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능력이 향상된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및 성공적 노화 인식 간의 상관성 조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하부요인 중 의사소통방식과 성공적 노화 인식, 가족탄력성의 하부요인 중 조직유형과 성공적 노화 인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의사소통방식과 조직유형이 긍정적일수록 성공적 노화를 높게 인식함을 의미하며, 가

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가 높다는 Nam과 Lee [8]의 연구와 Kim [25]의 연구 결과와 그 맥락이 유사하다. 즉 자아탄력성의 의사소통방식은 타인과 적절히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수록 성공적 노화를 높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탄력성의 조직유형은 가족이 하나의 단위체계로 통합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위기와 역경을 다루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 스트레스를 중재하여 가족의 내·외적인 변화 상황에 적합하도록 가족의 구조를 재조직하는 능력[15,16]으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여 적극적으로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청하면서 가족과 지역사회 내의 자원체계에 적절히 연결시킬수록 성공적 노화를 높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의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도전과 성장을 통해 적응을 위한 자아탄력성 및 가족탄력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다양해진 가족문제를 감소시키면서 미래에 다가올 성공적인 노년기를 위한 적절한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성공적 노화 인식에 자아탄력성의 의사소통방식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7%였다. 의사소통방식은 대학생 시기에 중요한 대인관계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으로써 Chae [26]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영향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을 유의한 변수로 규명한 바 있으며, 교육과정 연계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에서 다양한 대상자들을 만나야 하므로 그만큼 의사소통방식이 중요하며, 이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훈련 또한 필요하다. 간호사들의 주 대상자가 노인의 비율이 많아지는 현 상황에서 의사소통방식은 간호대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성공적 노화를 높게 인식하고, 자아탄력성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된 의사소통방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의 다양한 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성공적 노화 인식 중 가족탄력성이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Kim [11]의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이 성공적 노화의 주요 예측요인이라고 하여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연령과 결혼상태 등에 따른 차이로도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가족탄력성에 대한 부분도 성공적 노화를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생각된다. 한일 대학생의 성공적 노화 지각 정도를 비교한 Kim [5]의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은 성공적 노화를 인식하는 데 있어 노년기에 부부가 건강하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질병이나 장애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등 관계지향적인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미래에도 가족관계를 강화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 교육,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Hyun [22]도 대학생들의 가족탄력성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가족관의 유대, 의사소통이나 가치체계 공유를 말한다. 따라서 가족탄력성을 위해서는 가족 간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서로 공유하게 하며, 상호 협력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가족 내의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족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의 일부 하부항목의 신뢰도가 낮으며, 자아탄력성의 의사소통방식은 타인과 적절히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나 가족탄력성에서도 의사소통의 영역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아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이 성공적 노화를 인식하는 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성공적 노화 인식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및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자아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이 성공적 노화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여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기 위한 중재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및 성공적 노화 인식은 보통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고, 일반적 특성 중 거주형태와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가족탄력성이, 학년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자아탄력성의 의사소통방식 및 가족탄력성의 조직유형은 성공적 노화인식과 관련성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은 의사소통을 통한 자신의 스트레스 등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성공적 노화 인식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임상 현장이나 가정에서 노인환자를 간호하는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성공적 노화 인식은 노인 대상자에 대한 이해는 물론 그들에게 제공할 간호의 목표를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과 다른 전공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해 성공적 노화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공별 특성을 파악하여 성공적 노화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성공적 노화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영역에서 의사소

통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Statistics of elderly 2018 [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8 [cites 2018 September 27].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1/index.board?bmode=read&aSeq=370779
2. Lee SY.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successful aging between women and men. *Gender and Culture*. 2010;3(1):99-130.
3. You YM, Kim SH. Successful ageing among the elderly: influence of support from family and friend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2019; 23(1):1-16. <https://doi.org/10.22626/jkfrma.2019.23.1.001>
4. Park KR, Yi YS. A study on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in later lif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y Society*. 2002;22(3):53-66.
5. Kim YJ. A comparison of the perception on successful aging of Korean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08;28(3):567-583.
6. Lee JY, Kim JS. The influence of the meaning of work on the ego resilience in the elderly-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family suppor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2018;9(4):1021-1034. <https://doi.org/10.22143/HSS21.9.4.72>
7. Park JY, Kim JM, Shin EJ. A effect of adult attachment on ego-resilience in undergraduates: focusing on a mediating effect of early maladaptive schema.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017;33(3):1-20.
8. Nam KM, Lee JE. The relationship between older adults' daily life stress and their successful aging-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12;57(1):85-112.
9. Jang HY, Yi MS. Effects of burden and family resilience on the family adaptation of family caregivers of elderly with dementia.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3;25(6): 725-735. <https://doi.org/10.7475/kjan.2013.25.6.725>
10. Kang SO, Ha KS. Relations between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and their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11(12):121-144. <https://doi.org/10.14400/JDPM.2013.11.12.121>
11. Kim BM. Perceptions of successful aging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middle-aged wo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19(9): 91-99. <https://doi.org/10.5762/KAIS.2018.19.9.91>
12. Lee CS. Differences in the awareness of successful ageing between adolescents and old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2007;12(3):85-107.
13. Yang YK. A study on aging knowledge, attitudes and aware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in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4):498-507.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4.498>
 14. Lee ES, Kim SH.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go-resilience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2;13(6):3077-3094. <https://doi.org/10.15703/kjc.13.6.201212.3077>
 15. Walsh F. The concept of family resilience: crisis and challenge. *Family Process*. 1996;35(3):261-281. <https://doi.org/10.1111/j.1545-5300.1996.00261.x>
 16. Shin MS, Kim KS. A study on the functional level of the mentally disabled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main supporting family members life-with focus on the media effect of family resilienc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13;18(3):91-112.
 17. Paik JE. Successful aging perceived by Korean elderly: cross-cultural perspectives [dissert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6. p. 1-155.
 18. Choi IY. Research on sense of value and perception on successful aging of Korean middle aged people [dissert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7. p. 1-155.
 19. Park KS, Yoon HM. University students' health behavior, depression, and ego-resilience. *Journal Korean Academy Psychiatry Mental Health Nursing*. 2016;25(2):113-122. <https://doi.org/10.12934/jkpmhn.2016.25.2.113>
 20. Lee KH. Convergence between ego-resilience, major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6;10(3):297-306. <https://doi.org/10.15207/JKCS.2019.10.3.297>
 21. Hong JY, Lee SY. The effects of parenting style, ego-resilience, sexual awareness toward marriag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9;19(2):1282-1297.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2.1283>
 22. Hyun EM. The effect of perceived family resilience on family strengths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18(3):165-174. <https://doi.org/10.5762/KAIS.2017.18.3.165>
 23. Yoon SJ, Kim HJ. The relation between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and family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11(8):23-30.
 24. Choi JC. Image about old man and relation between awareness about successful aging which college students recognize. *Korean Journal of Care Work*. 2006;2(2):70-87.
 25. Kim BM. Perceptions of successful aging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middle-aged wo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19(9):91-99. <https://doi.org/10.5762/KAIS.2018.19.9.91>
 26. Chae MO.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5):95-103. <https://doi.org/10.5762/KAIS.2016.17.5.95>

Influence of Ego Resilience and Family Resilience on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in Nursing Students

Yang, Nam Young¹⁾ · Song, Min Sun²⁾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2)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go resilience, family resilience, and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in nursing students; additionally, specific factors relating to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were identified. **Methods:** The participants comprised 154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administration of self-reported questionnaires. Data analysis was then performed utilizing a t-test, an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amily resilience differed significantly based on the type of residence ($p=.020$) (i.e., living with grandparents ($p=.048$)).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differed significantly based on grade ($p<.001$).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relative to mode of communication and organizational pattern. The mode of communication accounted for 4.7% of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Conclusion:**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on the importance of mode of communication was confirmed by identifying the effects of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Nursing students may actively cope with crises through communication; thus, successfully recognizing aging in order to lead a healthy life. Furthermore, having a high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while treating an increasing number of elderly patients at the clinical practice is believ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atient care.

Key words : Resilience, Aging, Communication, Nursing student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ong, Min Sun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158 KwanJeoDong-ro, Seo-gu, Daejeon, 35365, Republic of Korea

Tel: 82-42-600-8566 Fax: 82-42-600-8555 E.mail: mssong@konyang.ac.kr